

「報恩奇遇錄」研究

李 在 春

<目 次>

I. 序 論

III. 價值觀의 樣相

II. 人物의 對立과 和合

IV. 結 論

I. 序 論

「報恩奇遇錄」은 총 18권 18책 556엽으로 필사되어 있는, 작자·연대 미상의 李朝時代 小說이다.¹⁾

鄭炳昱 교수는 이 작품에서 身分構造的 崩壞過程과 貨幣經濟時代의 價値觀²⁾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³⁾ 金起東 교수는 이 작품을 호도를 주제로 한 倫理小說로 보았다.⁴⁾ 이 두 분의 논고는 비록 이 작품에 대한 최초의 연구 업적이긴 하나, 다소 일면적이고 부분적인 고찰에 그쳐 버린 감이 있다. 또한 시도가 전혀 이질적인 내용을 지닌 작품으로 파악했는데, 이처럼 한 작품이 두 연구자에 의해 각각 달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에서는 經濟 問題와 倫理 問題를 둘리 싸고 논쟁이

1) 이 작품은 최근 梨花女子大學校 韓國語文學研究所에서 景印校註本으로 간행한 바 있다.

報恩奇遇錄 上·下(서울:梨花女大出版部, 1976)

※ 본고는 이 자료를 대본으로 한다.

2) ‘價値觀’이란 말은 善惡 또는 是非 차이의 實踐의 問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行動을 일으키게 하는 心理的인 要因을 의미하기도 한다.

金泰吉, 人間回復序章(서울:三星文化財團, 1974) p. 14 참조.

3) 鄭炳昱, 李朝末期小說의 類型의 特徵—樂善齋本小說의 몇 作品을 中心으로—, 古典文學을 찾아서(서울:文學과 知性社, 1976) pp. 255~260 참조.

4) 金起東, 報恩奇遇錄과 明行正義錄—李朝連作小說의 研究(1)—, 陶南趙潤濟博士 古稀紀念論叢(大邱:螢雪出版社, 1976) pp. 256~258.

벌어지고 있는데, 논점의 양상과 결과를 통해서 작품의 실상이 밝혀지리라 믿는다. 이 작품은 家門小說⁵⁾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英雄小說로서의 면모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이러한 작품의 전개 방식은 논외로 한다. 본고의 목적은 가치관이 다름으로써 야기되는 등장인물의 대립과 갈등을 살피고, 또한 가치관의 양상을 사회 변화와 관련시켜 파악함으로써 이 작품의 실상을 규명하는 데 있다.

Ⅱ. 登場人物의 對立과 和合

이 작품의 실상을 보다 縝密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등장인물의 대립과 화합의 관계를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작품은 복합적인 대립과 화합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대립과 화합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려 한다. 서로가 대립관계를 보이는 인물로는, 위지덕과 위연청, 위지덕과 양씨부인, 위지덕과 녹운, 위연청과 녹운이 있고, 서로가 화합관계를 보이는 인물로는 위연청과 백소자, 위연청과 유한 등이 있다. 위지덕과 위연청은 후반에 와서는 화합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위지덕과 녹운은 표면적으로는 친근한 관계처럼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대립관계를 지니고 있다가 끝내 적대적인 관계로 된다.

1. 위지덕과 위연청

우선 이들 부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性格과 思考方式의 差異부터, 아래와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學問과 벼슬

1) 위지덕은 선조들이 벼슬에 뜻을 두다 敗家하자, 「베슬른 내 집에 불호지스요 글잘홈이 한갓 스스로 괴로운 자름이요 했이름을 중히 여겨 평생 궁권을 감심함이 어리지 아니리요」⁶⁾하면서 富者가 되어 평안히 사는 것이 行樂이라 하고 스스로 글 읽지 아니하고 오직 治産에만 힘쓴다.

2) 위연청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고 배우면 지식이 세사를 달통

5) 家門小說이란 家門中心으로 쓰여진, 家門 暢達을 위한 小說이다.

李樹鳳, 家門小說研究(大邱: 螢雪出版社, 1978) pp.25~34 참조.

6) 상권 p. 7.

하지만, 치산부가할 자식을 원하는 아버지의 미움을 산다.

위지덕은 어려서부터 가난한 선비 생활에 너무나도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철저한 拜金主義者가 된다. 그는 돈을 위해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守錢奴의 典型的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위연청은 천성이 글 읽거나 좋아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문자 그대로 清廉節義를 숭상하는 李朝時代 선비의 典型的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글 읽기만 좋아하고 재물에 초연하니 治産富家할 재목이 못 된다고 하면서 싫어한다. 아들은 아들대로, 당시 兩班社會에서 禁忌로 여기는 재물에나 탐닉하면서 선비의 본분을 저버린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위연청은 학문을 해서 벼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儒敎主義者이다. 한편 위지덕에게는 아들 연청이 학문과 벼슬에 뜻을 두고 재물에 초연함이 매우 어리석은 행위로 보여 크게 걱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학문과 벼슬을 지향하는 것은 곧 敗家亡身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 禮節과 體面

1) 위지덕은 가문의 체면을 돌보지 않고 樵夫 牧童의 일과 市井商人의 일을 다 시험하고 富商大賈들만 벗어나, 衣冠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單衣單袴로 일한다.

가문 체면을 도라보미 업고 초부 목동에 초님과 시정상고에 일을 아니 시험함
미 업스니 스문을 오예흥미 극함되⁷⁾

2) 위연청은 아버지가 친히 殺肉賣買하고 손수 저울을 잡음을 보고 낮을 들고 살 수 없다고 한다.

덕인이 친히 가서 근근호스 저어 살육 퇴막하셔서 가정의 푸조를 열며 임위 손
조 시평을 잡으시니 도시 휘아의 유충불효호미라 쇼지 엇지 낮칼 드러 천일지하
에 서리잇고⁸⁾

위지덕은 가난하여 祭祀도 지낼 형편이 못되고 변변찮은 음식조차 들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자, 가문의 명예나 선비로서의 체면 같은 것은 내

7) 상권 p. 8.

8) 상권 p. 33.

팽개치고 兩班들이 꺼리던 市井商人의 일에 직접 종사하고, 심지어는 가장 천대받던 직업인 白丁들이나 하는 푸줏간까지 경영한다. 또한 그는 선비로서 의당 갖추어야 할 의관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활동에 편리한 單衫草帽을 착용하고 일한다. 한편 위연청은 봉건적인 儒敎倫理 속에 유지되던 李朝社會의 선비이기 때문에, 선비 집안의 체면 같은 것을 내팽개치고 市井商人이 되어 푸줏간과 주청(술집)까지 차려 놓고 市井雜人들과 어울려 사귀는 아버지가 가문의 명예를 먹칠한다면서 낯을 들고 살 수 없다고 한다.

다. 勞動과 商行爲

1) 위연청은 아버지가 푸줏간과 술집을 열고서 직접 살육 매매할을 보고 선비의 집안이란 것을 내세우며 하지 못하게 한다.

2) 위지덕은 이에 「치산후는 법이 막과어치니 네 쇼활판탕헌 외구의 헌탕헌 시귀를 지저귀고 종일토록 무흠을 아마 흥거후물 보고 티리성니후물 놀니네 내 성각기를 그릇후여 바리엿도다」⁹⁾하면서, 여러 번 자기 명을 거역한 것이 글자 읽은 때문이니 장래 敗家하지 않도록 면해야 한다면서 매질한다.

연청은 아버지가 술집에서 직접 利殖을 거두는 일과 푸줏간의 저울을 손수 잡음을 보고 못하도록 한다. 그러자 위지덕은 治産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데도, 식구나 배우더니 세상 물정도 모르는 자식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이처럼 위지덕은 士農工商으로 분류된 철저한 계급사상 속에 유지되어 오던 李朝時代 兩班社會의 질서를 무시하고, 일반 서민들이나 종사하는 노동과 상행위에 직접 종사한다. 반면에 위연청은 기존 도덕관념이나 체면·명분 같은 것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는 노동이나 상행위는 천한 사람, 곧 육체노동은 하인배들이, 장사는 시정잡배들이, 짐승을 잡아 파는 것은 白丁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당시 양반들의 保守的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

라. 拾得物 處理

1) 연청은 빚 받으러 가던 중 길에서 料資銀이라 쓰인 고화를 습득한다. 그는 잃어버린 사람에게 되돌려 줌이 적선이라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준다.

2) 위지덕은 평생 보지도 못한 증보를 하늘이 내려 주었는데도 남에게 도로 주었다고 들고는, 이런 인정탁의 일을 하니 장차 자기가 애써 모은 재산까지도 다 남에게 주고 敗家亡身할 것이라 하며 죽도록 매질한다.

9) 상권 p. 33.

하늘조차 크고 폭어도 만나지 못할 등보를 지신이 주저할 날을 설치하여 도의 조차 버리고...너는 두엇다가 개가망신하리라 하고 곳 큰 돌을 어디 다고 두드리니¹⁰⁾

위연청은 人倫道德을 숭상하고 清廉節義를 존중하는 선비이기 때문에, 길에서 주운 물건은 잃은 사람의 위급하고 곤란한 처지를 생각해서, 아무리 보배라도 되돌려 줘야 한다 생각하며, 不意의 橫財에 대해서는 추후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위지덕은 길에서 주운 물건은 곧 주운 사람이 임차로서 응당 가져 마땅한 것인데도, 하늘이 내려 준 증보를 바보처럼 남에게 도로 주었으니 장차 자기가 피땀흘려 모은 재산까지도 다 남에게 주어 버티고 언젠가는 패가망신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로 보아 위연청은 재물에 초연하고 양심적인 인물인 데, 비해, 위지덕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 추구에 만 전념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마. 高利貸金業

1) 연청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빚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열 배나 되는 利子 때문에 패가해서 자식까지 팔아 치운 채무자가 있다고 듣고는, 이자는 받지 않고 원금만 받는다.

2) 위지덕은 평소에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官과 결탁하여 원금보다 몇 배의 이자를 받아 치부하는데, 이자를 받으러 간 연청이 본부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이자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화가 나서 철권으로 아들을 때려 죽인다.

위지덕은 孔子의 제자 子貢의 돈변이를 성인인 孔子도 혐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빚을 주고 이자를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연청은 清廉하고 재물에 초연해야 한다는 古人들의 말을 좇아, 아버지의 행위가 인간의 도리뿐만 아니라, 손에 돈을 집지 않는다는 兩班들의 체통에도 어긋나는 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이자도 너무나 부당하게 많이 받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父子間의 대립과 갈등의 요인이 되는 두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 차이에 관해 지금까지 살핀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둘은 서로가 자기의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를 옳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의

10) 상권 p.76.

구분	위	지	덕	의	연	청
선비관	◦ 가난한 선비 생활을 부정하고 있다.			◦ 선비는 청렴하고 인륜도덕을 존중해야 한다.		
학문관	◦ 학문과 벼슬은 곧 가난으로 통하는 길이다.			◦ 학문은 선비의 본분이요 입신출세는 효의 길이다.		
노동관	◦ 선비도 노동이나 상행위를 할 수 있다.			◦ 선비는 노동이나 상행위 같은 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금전관	◦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철저한 배금주의자요 물질주의자 ◦ 길에서 주운 물건은 주운 사람이 가짐이 당연하다. ◦ 남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음이 당연하다.			◦ 돈보보다도 인륜도덕이나 학문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정신주의자 ◦ 길에서 주운 물건은 아무리 보배라도 원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 남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	◦ 아들이 자기가 피땀흘려 모은 재산을 다 낭비하고 패가망신할까 우려한다. ◦ 선비의 길을 택하려는 아들이 어리석게 보여, 상인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고 있다.			◦ 아버지가 인륜도덕이나 체면도 도르고 비천하게 살아간다고 부끄러워 한다. ◦ 선비의 후예로 상인이 된 아버지를 비천하게 보고, 아버지를 다시 선비로 돌이키려 하고 있다.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했다. 그리하여 서로가 상대방의 意識構造를 개조하려 한 데서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위지덕과 위연청은 성격부터 철저히 대립적인데, 이것은 그들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래와 같이 달랐기 때문이다. 위지덕이 物質的·經濟的 價値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인물이라면, 위연청은 精神的·學問的 價値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인물이다. 위지덕이 現實的·世俗的 價値를 추구하는 인물이라면, 위연청은 道德的·倫理的 價値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위지덕이 個人的·利己的 價値를 추구하는 인물이라면, 위연청은 社會的·集團的 價値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위지덕이 당대의 질서를 해조하려는 進歩的·改革的인 인물인 데 비해서, 위연청은 당대의 질서를 수호하려는 保守的·傳統的인 인물이라고 하겠다. 결국 위지덕과 위연청의 대립은, 극단적인 물질주의자와 극단적인 정신주의자의 대립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는 인물과 이를 수호하려는 인물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서 위연청이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 양반들이 사고 방식에 맞는 행동으로, 기존 조직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수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지덕이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양반들이 금기로 여기던 노동이나 상행위에 종사하고 금전을 숭상하는 등 기존의 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려 한 때문이다. 조직사회는 그 구성원 중에서 그 조직 내의 윤리와 질서를 깨뜨리려 할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위지덕이 이처럼 부정되고 끝내 패배당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 의식과 작자의식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처럼 金錢觀에서는 위지덕이 進歩的이요 위연청이 保守的으로 나타나는 데, 孝道觀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李朝時代의 家族制度와 孝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李朝時代의 家族制度는 기본적으로 儒敎의 制度이며, 가족 원리는 孝 중심의 제도로써 부자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가족의 중심이父子에 있으므로 家長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요구된다. 당시에는 孝란 부모에 대한 무조건의 복종을 의미했다.¹¹⁾ 위지덕은 당시 사회의 통념대로 자식은 부모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에 젖어 있다. 위지덕은, 어려서부터 재물과 治産에는 관심이 없고 글 읽기만 좋아하면서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을 천하다고 생각하고 못하게 저지하려 드는 아들을 여러 차례 벌하고 있다. 위지덕의 이러한 태도는, 가난한 선비의 길을 버리고 商人의 길을 택한 데 대한 확고한 긍지와 신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식은 부모의 명을 받들어 가업을 이어 가야 하는 태도도 불구하고, 연청은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 선비가 되려 했고 재물에 초연하니 장래 패가 망신할까 우려되어, 가문(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에서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위연청은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간해서라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청은 人倫道德과 清廉節義를 존중하던 李朝時代 선비의 典型的인 인물로서, 古人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재물에 대한 탐욕을 꺾고 당시 兩班社會에서 수치로 알던 노동이나 상행위에 직접 종사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만 했고, 世人의 비난으로부터 아버지를 구하고 가문의 영예를 지키기 위해 극력 간하고 있다. 본래 儒敎의 經典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된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孝道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封建의 家族制度를 바탕으로 家族主義가 형성되었던 까닭에 儒敎의 발상지인 中國에서보다도 더 경직되어 후대로 내려올수록 상하의 일방적인 윤리로 변질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위연청은 이처럼 변질된 孝,

11) 崔在錫, 韓國家族研究(서울: 民衆書館, 1966) p. 224 참조.

곧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본래의 孝, 곧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된 경우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효도이다.”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金錢觀에서나 孝道觀에서나 모두 保守的인 연정이 결국 승리하고 마는 것은, 당시에 사회 일각에서 팽배하던 物質主義・拜金主義를 경계하고 본래의 儒敎的인 기풍을 재진작시킴으로써 당시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수호하려 한 작자의식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이 작품의 전반부에서 심한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던 위지덕과 위연청은 후반에 와서부터는 和合과 統一을 보여 준다. 위지덕은 가난한 선비 생활에 싫증이 나서 선비 신분을 버리고 商人의 길로 들어서서 철저한 拜金主義者가 되었지만, 독살당했다가 소생한 후로는 가치관이 바뀌고, 또한 立身出世한 아들 덕으로 자신의 벼슬길도 트임으로써 원래의 선비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자신은 뼈가 부러지게 노동을 해야 재물을 모을 수 있었고, 게다가 선비로서 노동과 상행위에 종사한다 해서 비웃음과 비난까지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아들이 학문을 하여 벼슬길에 오르자 天子가 십만관을 현수하니 노동하지 않고도 생기는 막대한 재물에 위지덕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저물이 구산고되어도 조신의 괴로움만 극하고 사람의 지소함이 심하더니 오직의 청년 소활호문 이러듯 영귀 현달하여 구치 아녀도 일순의 십만관을 현수함을 보니 진실노 쾌리하디 문혹만 못디 못함을 안디라.¹²⁾

또한 그는 아들 덕분에 시중 벼슬까지 하게 되자 지금껏 기피하던 학문과 벼슬에 대해 오히려 선망하는 마음이 생겨, 벼슬에 대한 자신의 잠재적인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게 되자 선비의 신분으로 확원한 것이다.

2. 위지덕과 여타 인물과의 관계

가. 위지덕과 양씨부인

이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위지덕의 수전노적인 이익 추구에 대한 양씨부인의 반발로 시작된다. 양씨부인 역시 위연청과 마찬가지로 인물과 재면

12) 父有爭子，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不爭於父…故當不義 則爭之 從父之 命又焉得爲孝乎(孝經，諫諍章)

張燕樞 역주, 大學・中庸・孝經(서울:平凡社, 1976) p. 51.

13) 하권 p. 68.

을 존중하는 등 당시의 유교적인 질서를 수호하려는 인물이다. 공부나 좋아하고 재물에 초연한 아들을 미워하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으며, 아들에게는 남편 몰래 두어 권 蒙學을 구해 가르치면서, 뒷날 立身出世하여 부모의 부끄러움을 씻는 것이 효도라고 교육한다.

나. 위지덕과 녹운

위지덕과 녹운의 갈등을 위지덕이 녹운의 위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다가 나중에 드러난다. 녹운은 위지덕을 더욱 더 흉악무도하게 인도하면서 수차례나 참소로써 부자간을 이간시키고 대립을 격화시키다가 끝내는 아버지가 자식을 타살토록 충동하고 마침내는 위지덕마저 독살하고 잔부와 도망침으로써 이들 사이의 갈등은 사라진다.

위지덕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의 관계를 살펴 볼 때, 위지덕은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부간에도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부자간에도 극심한 대립을 보여 주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위지덕은 대립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라 하겠으며, 또한 그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체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증좌이기도 하다.

3. 위연청과 여타 인물과의 관계

가. 위연청과 백승설

이들은 본래 天上의 별들로서, 천계에서 붓을 빌리고 별터 준 죄로 謫降되어 서로가 만단고조를 겪게 될 운명을 타고 났다. 백승설 역시 위연청처럼 봉건적인 儒敎思想으로 천저히 무장된, 이른바 淑女의 淑德을 갖춘 窈窕淑女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근한 화합관계를 이루면서, 서로가 상대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나타나 구해 준다. 또한 백소저는 요첩에게 독살당한 시부를 구해 내고 위연청의 무고함을 밝힘으로써 이들 부자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 위연청과 유한

이들의 관계 역시 서로가 상대편을 위기에서 구해 주고 나중에 함께 공명을 누리게 되는 화합관계를 이루고 있다. 양태감의 家丁이던 유한이 科資金을 잃고 곤경에 처한 것을 위연청이 우연히 주워 되돌려 줌으로써, 이들 사이에는 主從 관계에 준하는 친근한 관계가 시작된다. 유한은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편생을 지성으로 그를 받든다.

위연청은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살펴 볼 때, 위연청은 처음에는 아버지와 대립하였으나 끝내 아버지를 改過遷善시키고 화합을 이룸으로써 부자간에도 결국 화합을 이루고, 또한 아내인 백부인이나 어머니인 양씨부인, 그리고 유한파도 항상 화합을 이루고 있다. 이로 보아 위연청은 화합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며, 이 점 위지덕이 대립의 근원이란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는 건국 위연청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가 옳기에 가정에서 화합을 이루지만, 위지덕의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는 잘못된 것이기에 대립의 근원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Ⅲ. 價值觀의 樣相

本章에서 가치관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 주제를 추출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먼저 몰락양반의 처지와 가치관의 문제를 社會相과 관련시켜 파악하고, 交換經濟的 價值觀의 대두를 經濟史와 관련해서 파악한 뒤, 善惡 概念의 樣相을 倫理觀의 변천과 관련해서 파악함으로써 주제를 추출하기로 한다.

1. 沒落兩班의 處地와 價值觀 問題

李朝時代는 儒學을 國是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百姓들이 모두 人倫道德을 숭상하고 清廉節義를 존중하는 기풍을 가지는 등 儒敎가 공헌한 바가 지대하였지만, 반면에 지나친 慕華·復古 思想이라든가, 黨爭과 文弱, 家族主義의 弊端, 階級思想, 尙名主義, 產業能力의 低下 등 儒敎가 미친 해독 또한 컸었다.¹⁴⁾ 그중에서도 清廉節義를 존중한다면 安貧樂道나 부르짖어 가난한 兩班·선비를 만들어 내고 끝내는 나라마저 가난한 나라로 바꾸고 말았다. 선비들이란 聖賢의 글이나 읽고 이를 잘 暗誦하고 詩文이나 짓고 倫理道德이나 역신하면서 淸貧하게 살아야 했으며, 手足을 놀려 農業이나 工業에 힘쓰는 것이나 商業을 통하여 이익을 보는 것은 선비들의 할 바가 아니었다. 이러한 儒敎에서 손꼽히는 것을 천시하는 경향은 가난한 선비, 생활에 무능력한 선비를 대량 생산했다.

이러한 양반들의 商工業을 천시하는 경향 외에도, 中央政界에서의 權力

14) 玄相允, 朝鮮儒學史(서울: 民衆書館, 1974) pp. 4—9 참조.

아름이나 黨等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한 양반들은 대량 생산했다. 즉 朝鮮후기에 이르러 黨等의 정치적인 대립 행쟁이 제속되다가 老論에 의한 一黨專權으로 집어 들자 黨色을 달리하던 여타 관료들은 불가피 거세되어 落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기존 兩班階의 몰락을 촉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일단 관직에서 물러나면 생계 유지조차 어렵게 된 것은 뻔한 일이다.

이 작품은 지체와 재산을 상실한 몰락 양반이 가난한 선비 노릇을 계속한 것인가, 아니면 兩班 身分을 내팽개치고라도 부유한 商人의 돈을 택할 것인가 하는 심각하고도 절실한 고민과 갈등을 허구화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兩班은 「忍飢耐寒 口不說貧…手毋執錢 不問米價」¹⁵⁾하는 식으로, 재물이나 경제적 행위에 존탈할 것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자 몇바퀴 벼슬집이 끊겨 국민의 경제에 이르게 된 兩班들은 스스로 農業이나 商業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위지덕의 집, 곧 商人의 돈은 실정환면에서는 실리적 이긴 하나 당시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면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이를 무시하면 세인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兩班 身分까지 박탈될 위험이 있다. 한편 위연청의 집, 곧 선비의 집은 당시 사회의 윤리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눈앞에 닥친 굶주림 때문에 생명의 존속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 위지덕이 경험한 가난은 누구나 당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이요, 위연청의 입신 출세는 기대하기 어려운 가상적인 일이다. 李鮮 後期에 와서 지체와 재산을 상실한 沒落兩班들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당시의 사회 관습과 윤리는 兩班階級에 속하는 선비가 市民들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회적 제재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兩班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결국 兩班 身分까지 상실하게 되며, 士族이라도 한번 庶民이 되어 賤業에 종사하면 그 후손들의 官界進出에까지 애로가 생겼다. 그러므로 서민인 위지덕의 아들 위연청이 이루는 立身場名은 전혀 불가능한 상상 곧 理想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한편 實學者 柳誼垣은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양반이 천업에 종사하면 국가가 영구히 禁鋼하니, 이것이 禁制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선비가 농·공·상에 종사한다면 그의 교유와 혼인과 벼슬에 장애가 없을 리가 있는가? 사람들은 반드시 저 사람이 평민과 같이 천하게 되었

15) 朴趾源, 兩班傳; 李家源 역편, 李朝漢文小說選(서울: 民衆書館, 1971) p. 220

으니 교우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이다.¹⁶⁾

위지덕의 집안은 본래 선비 집안으로 선조들이 벼슬길에 나갔다가 현직고관이 되지도 못하고 夭折하거나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어, 마침내는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변변찮은 음식조차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몰락한다. 위지덕은 명분보다 실질을 숭상하는 인물이므로 兩班의 허울좋은 체면과 명예만 찾다가 평생 굶주림은 어리석은 일로 생각해서, 賤民들이 종사하는 商行爲에 손을 대어 급기야는 賤民으로까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고 만다. 아무리 兩班이라도 일단 賤民이 되면, 다시 兩班 身分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이 당시 사회의 신분 질서였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경제 문제와 윤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반 신분을 버리고 상인의 길을 택한 위지덕이 부정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수호하려는 위연청이 긍정됨으로써 위연청의 승리로 귀결되지만, 그 승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달성되기 어려운 꿈인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2. 交換經濟的 價值觀의 機頭

李朝時代는 仁義禮智의 儒敎思想을 철저히 신봉하던 시대로서, 人倫道德이나 體面 같은 형식적 규범에 얽매어 살던 시대였다. 선비들은 人倫道德과 學問이나 숭상하고 勞働이나 商行爲를 천시하던 시대였다. 實學者 洪大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래부터 명분을 중히 여겨, 양반들은 비록 곤궁하여 굶주려도 관쥬를 끼고 편히 앉아 농사를 짓지 않으며, 혹 확실히 생업에 종사하거나 문소 비천한 일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못 사람이 비웃고 노예처럼 여긴다.¹⁷⁾

위지덕은 이러한 고정된 사회 인습에 반기를 든 사람이다. 곧 양반은 노동이나 상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거부하고 나선다. 위지덕은 士族의 후예지만 젊어서부터 가난한 선비 생활에 진저리가 났기 때

16) 兩班爲賤業則國家永鉤之 此非禁制者乎 今士族果爲農工商則交游婚宦 其無妨碍之理乎 人必首稱曰彼漢已夷於平民矣鄙而絕之唯恐不嚴
柳壽垣, 迂書, 影印本(서울: 서울대출판부, 1971) p. 20.

17) 我國素重名分 兩班之屬 雖窮連窮餓 拱手安坐 不執耒耜 或有務賃觀業 棄甘井賤者 群譏衆笑 視若奴隸(湛軒書, 林下經綸)
洪大容, 湛軒書; 千寬字·柳承宙 譯(서울: 大洋書籍, 1975) p. 88.

문에 富를 숭상하는 사람이 되어, 체면이나 인륜도덕 같은 것은 무시하고 노동이나 상업에 종사하면서 근검절약하고 高利貸金業 등으로 치부한다.

위지덕이 비록 기존의 가치 규범에 벗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물질주의 역시 부정적인 가치로 규정되긴 했지만, 현실생활에서 금전의 위력이 상당하였고, 또한 기존의 관념적인 가치체제와 새로운 물질적인 가치체제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지덕이 兩班 신분이지만서도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商業에 종사하고 심지어는 가장 천대받던 계층인 白丁들이나 하는 무릇간까지 경영한 것은 새로운 직업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위지덕이 이처럼 꺼리낌 없이 商業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상행위가 결코 천한 행위가 아니고 몇몇한 직업이란 자기 나름의 확신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위지덕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꺼리낌 없이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가 自然經濟時代에서 貨幣經濟時代로 移行하는 시기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淸貧・義理등 社會的 價値를 추구하던 관점에서 상행위 같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 욕구 달성으로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위지덕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자 兩班의 신분으로 商業에 종사하고 高利貸金業에다가 무릇간까지 경영함으로써, 사회적 지위가 선비(兩班)에서 商人(庶民)으로, 마침내는 白丁(賤民)으로까지 떨어지지만, 그는 조금도 이에 구애받지 않고 천업에 종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社會的으로는 士農工商의 신분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經濟的으로는 商業社會의 貨幣經濟가 대두하였으며, 思考面에서는 實利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적으로 봐서 인륜 위주, 선행 위주의 가치관은 物量 위주의 가치관으로 변모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兩班階層에서는 商人이 된 위지덕을 부정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아들 위연철을 지지했다. 이는 交換經濟的 價値觀을 거부하고 인륜 위주의 가치관을 회복하려는 작자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8) 實學時代에 이르러 儒敎의인 職分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 士大夫階層도 無爲徒食에서 벗어나 실제 農業과 商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李瀾・李重煥・柳齊垣・朴趾源・朴齊家 등의 實學者에 의해 나왔다.

3. 善惡 概念의 樣相

李朝小說에서는 흔히 작자가 작품 속에 깊숙히 개입하여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거나 행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 인물에 대한 善惡을 미리 정해 놓는 경우가 많다. 즉 선한 인물에게는 항상 찬사가 따르고 고난을 당할 때는 애듯한 연민의 정을 표하지만, 악한 인물에게는 항상 비난이 따르고 파멸을 당할 때는 노골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면 먼저 작품 속에서 위지덕을 묘사한 부분을 살펴 보기로 한다.

스름되오미 잔잉 작박호고 불근인정호 고로 흉악히 못될 노릇도 잘호고...적물 사망호를 머릿도곳 더호고 미극 익기몬 성명도곳 크게 하니 비슬 취염호미 주린 티 고기를 더위침 갖고 불의를 순이호른 스름에게 피를 싹며 남에 지물을 취호미 아니 밋친테 업스니¹⁹⁾

다음에는 위연청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살펴 보기로 한다.

심상헌 쇼전이라도 동희의 썩러지고져 호려든 허물며 위옥쥬의 빅설청빙 갖흠 이리오 현부형 만느지 못호 한이 이시나 효조의 성친지되 엇지 선악이 마음의 두 리오 이노 슬허호미 업고 효제지도들 잘진호여 혹조 너도호를 생각호엿디니²⁰⁾

이로 보아 작자가 위지덕을 惡人으로, 위연청을 善人으로 설정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에서의 선악은 작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작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善이고, 작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惡이다. 선악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와 개인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절대적이지 아니고 상대적이다. 이 작품에서 위지덕은 당시 兩班들이 금기로 여기던 노동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등 기존의 윤리와 질서를 깨뜨리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물(악인)으로 나타나고, 위연청은 이와 반대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호하려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물(선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자가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은 부정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긍정한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위연청이 선인으로 묘사되고 결국 승리하고 마는 것은, 당시에 팽배하던 물질주의·배금주의를 경계하고 청렴절의를 존중하는 儒敎의 가치관을 옹호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윤

19) 상권 pp.8-9.

20) 상권 p.32.

리와 질서를 수호하려는 작자의 보수적인 의식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가난하더라도 예의 엄치는 지켜야 한다는 위연청의 언행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허울뿐인 가난한 선비 노릇보다는 부유한 상인의 길을 택한 위지덕의 행동이 오히려 지혜롭게 보여 긍정되기도 한다. 초반에 부정되던 위지덕이 작품 후반에 와서는 다소 긍정되는 것도 윤리관의 변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지덕의 지나친 이익 추구는 당시 사회의 윤리로서는 철저히 부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처럼 몰락한 처지에서 상인의 길밖에는 택할 길이 없었음을, 후반에서 그의 아들 연청을 통해 긍정하고 있다.

우리집이 청빈 념제후여 과감이 세덕을 굿것사니 숙슈를 일일도 니을 길이 업는 디라 더인의게 니르려는 계소를 곁하며 가도를 보전치 못하시리니 도쥬공의 늑죽 기르미 왕씨의 업을 도모후던 나쁜 슈단이라 조공의 화식을 성인이 혐의 아니시니 혼쥬 일전을 덕히여 아수를 감심함미 디자의 하지 아닐 배니 잠간 신상을 굴함샤 화식 결용함시미 바베의 거술 취함미 아닌즉...히이 불순티만함고 몽애다예 함와 처음의 엄의의 박브득 보가함시를 쇠도디 못함읍고 다만 고인의 직물 념함미 어저다 함물 도히 념기오니²¹⁾

이는 결국 위지덕의 이윤 추구를 악한 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태도의 반영이라 생각된다. 이로 보아 이 당시가 이미 貨幣經濟時代에 이르러 이윤추구가 도덕적으로는 부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묵인되어 가는 과도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지나친 이윤 추구는 부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는 등 윤리관이 변천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은 朝鮮 後期에 들어와서부터 국내외의 여러 조류의 영향으로 평민들이 작성하면서 허울뿐인 儒敎의 空理空論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 儒敎精神에 입각한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질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뒤흔들리게 되자, 훼손되고 있는 王朝的 儒敎秩序를 재확인함으로써 이를 원상태로 회복·복구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지덕은 인물도덕이나 예의·체면 같은 것을 내팽개치고, 선비들이 금기로 여기던 노동이나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배금주의 사상을 가진 수전노가 되어 전통적인 儒敎秩序를 파괴한다. 이에 반해 위연청은 인물도덕을 중시

21) 하권 pp. 60-61.

하고 예의와 체면을 따지며 청렴 결백함을 숭상하는 선비로서, 아버지의 反儒敎의인 행동에 반발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儒敎의 가치관을 수호하려 한다. 이처럼 부자 간에, 한 쪽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도리어 수호하려고 함으로써 대립과 갈등을 이루고 있지만,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려는 위지덕이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이를 수호하려는 위연정이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데서, 물질적 가치는 저속한 가치로 정신적 가치는 숭고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기존의 儒敎의인 가치관을 수호하려는 작자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 가치가 비록 부정적 가치이긴 하나, 이는 전면적으로는 부정되지 않고, 그 중요성만은 인정되고 있다.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고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인간사회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나가는 데는 정신적 가치만으로는 될 수 없음도 또한 잘 보여 주고 있다. 극단적인 물질주의는 아들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고 있고, 극단적인 정신주의는 아버지에 의해 철저히 부정당한다.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극단적인 정신주의는 양자 모두 부정되고 있지만, 특히 극단적인 물질주의가 보다 더 부정되고 패배하도록 함으로써, 작자가 물질보다 정신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모름지기 선비는 재물보다도 도덕과 학문에 더 힘써야 한다는 뜻이다. 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생명을 이어 나가는 데는 재물이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너무 집착하여 윤리도덕마저 도의시할 때는 배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겉으로는 체면이나 명분 등을 내팽개치고 이익 추구에만 전념하는 위지덕의 행동을 경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굶주리면서 안빈낙도나 윤리도덕을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노릇인지를 보여 주고 있는 데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굶주리더라도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당시의 兩班들의 생활 자세가 생존이란 현실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 당시 사회의 윤리나 가치관도 飢寒에 대한 본능적 욕구보다 강할 수 없음도 여실히 보여 준다. 兩班이란 체면과 사회적 제약 때문에 굶주리면서도 안빈낙도나 부르짖어야 하는 데 대해 내적으로는 고민과 갈등이 심각했을 것이다.

결국 이 작품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원래의 儒敎의인 질서와 전통적인 가치관대로 회복하려는 작자의 보수적(복고적)인 의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주제는 전통적 가치관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라 하겠다.

IV. 結 論

『報恩奇遇錄』은 부자간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둘러싸고 심한 대립과 갈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중세적인 儒敎의 가치관과 근세적인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러한 작품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의도에서 본고가 집필되었다.

부자간의 대립과 갈등은, 아버지가 당시 兩班들의 급기이던 노동과 상업에 종사하는 데 대한 아들의 반발로 인해 야기된다. 이 둘은 서로가 자기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태도를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의식구조를 개조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위지덕과 위연청의 대립은 결국 극단적인 물질주의자와 정신주의자의 대립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기존 체제를 파괴하려는 인물과 이를 수호하려는 인물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위지덕은 당시 兩班들이 급기로 여기던 노동이나 상행위에 종사하는 등 기존의 윤리와 질서를 깨뜨리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위연청은 이와 반대로 儒敎의 가치관을 수호하려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작자가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부정하고 이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을 긍정한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위연청이 승리하도록 한 작자의 의도는 당시에 팽배하던 물질주의·배금주의를 경계하고 청렴결의를 존중하는 儒敎의 가치관을 옹호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윤리와 질서를 수호하려 한 데 있다고 본다.

이 작품은 새로운 가치관을 거부하고 기존의 儒敎의 질서와 전통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려는 보수적인 의지가 반영된 작품으로서, 주제는 전통적 가치관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라 하겠다.